

원안위원장, 한빛 1호기 사고수습 방치 국외 출장



엄재식 위원장

엄재식(53) 원자력안전위원장이 '한빛원전 1호기 원자로 열출력 급증' 사고가 외부로 알려져 원인 규명 요구와 원전 안정성을 두고 국민적 우려가 커지던 시기 국외 출장에 나섰던 것으로 드러났다. 원전 전문가와 지역주민들 사이에서는 "국내 원전 안전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상황의 심각성을 알고도 외유성 출장을 강행한 것"이라며 "세월호 선장이 배를 버리고 도망간 행위와 다를 바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27일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

인원 규명 요구·안전 우려 들끓던 20~23일 외유성 영국행 원전 전문가들 "컨트롤 타워 역할 포기... 있을 수 없는 행위"

자력 등에 따르면 엄 위원장은 지난 20일 영국 출장 길에 올랐다. 런던에서 개최되는 국제원자력규제자협의회 참석을 위한 출장으로, 엄 위원장은 2박 3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23일 귀국했다.

원안위 측은 "국제원자력규제자협의회는 한국·미국·캐나다·영국·일본·독일·프랑스·스웨덴·스페인 등 주요 9개국 원자력규제기관장들이 안전규제경험 공유 등을 위한 다자회의체로, 엄 위원장이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회의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빛 1호기 관련) 현지에서 보고를

받고 필요한 지시도 내렸다. 또한 일정을 최소화해서 돌아오는 것"이라며 위원장의 국외 출장이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원전 업계 일각에서는 "(사고 중 해외출장은) 극히 부적절한 행위로, 한빛 1호기 사고의 심각성과 현재 원안위 내부 상황, 이번 출장 성격을 감안한다면 있을 수 없는 처신"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우선 한빛 1호기 원자로 열출력 급증 사고는 지난 9일 원안위 승인을 거쳐 10일 한수원이 6개월여의 정기 점검을 마치고 원

자로 출력 시험 과정에서 빚어진 '제어봉 제어 실패' 사고다. 방사성물질 외부 유출은 없었으나, 제어봉 편차 조정 과정에서 무면허 작업자에 의해 5% 밀로 유지돼야 할 열출력이 18%까지 불과 몇 초 사이 치솟았다.

일부 원전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를 두고 "(제어봉 조작 실패에 따른 출력 급증에 주목해)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고 직전까지 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엄중한 상황을 사전에 사업자인 한수원과 원자력안전기술원 등을 통해 보고 받은 엄 위원장이 20일부터 국외 출장 길에 올랐다는 점이다. 교통체계도 이날은 원안위가 '한빛 1호기

사고 특별조사 확대 실시, 발전소 사용 중지, 특사경 투입 조사 착수'를 골자로 한 보도자료를 내놓은 날이기도 하다. 일부 원전 전문가들은 "국내 원전에서 일어난 사고 중 가장 중대한 사고로서, 장악된 핵연료 안정성 평가 등 사고 발생 이후 수습이 한창 진행중인 민감한 시기에 상황을 총괄해야 할 수장이 자리를 비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원전 전문가인 이정운 기술사(기계공학)는 "한심하다. 내용을 들어보니 영국 출장은 그냥 규제기관장 정보 교류모임으로 가도 그만, 안가도 그만인 행사"라며 "세월호 선장이 배를 버리고 도망간 것과 똑같은 케이스"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원안위는 사실상 위원장 다음 서열인 사무처장이나 위원 일부도 공식으로, 조직 또한 불안정한 상태"라며 "이번 사건을 가법게 본 것인지, 어떤 것인지 모르겠다. 엄 위원장 체제의 원안위의 규제 능력과 함께 엄 위원장의 상황 판단 능력에 의문이 든다는 전문가들의 비판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지난 25일 영광군청에서 이계호 의원 주치의 주민 간담회에서 "영광군민들이 납득할 만한 조치 가 있을 때까지 한빛 1호기 재가동을 멈추겠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주민들은 한수원과 원안위를 향해 "(한빛 1호기 관련) 발전소 관리에 실패한 한수원, 규제에 실패한 원안위의 '셀프 조사'는 믿지 못하겠다. 국내외 전문가, 국내외 기관 등 제 3자에 의한 독립적 조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27일 광주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2019광주FINA세계수영선수권대회 자원봉사자 발대식'에서 이용섭 광주시장을 비롯한 참석자들과 200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대회 성공'을 다짐하며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자원봉사자 발대식

"친절하고 성실하게 봉사" 다짐 ... 유니폼 패션쇼도 열려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는 27일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자원봉사자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수영대회 자원봉사자 1800여명과 이용섭 조직위원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관련기사 22면>

발대식은 자원봉사자들의 선서와 유니폼 패션쇼, 유명가수 공연 등으로 꾸며졌다. 자원봉사자들은 선서를 통해 대회 기간 친절하고 성실하게 봉사할 것을 다짐하고,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결의했다. 조직위는 그동안 광주와 전국 7개 권역을

순회하며 자원봉사 응모자를 대상으로 한 면접을 통해 자원봉사자 3126명을 최종 선발했다. 특히, 이번 대회가 세계 5대 메가스포츠 대회로 불리는 중요한 국제경기인 만큼,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등 총 832명의 통역 자원봉사자를 선발했다. 대회기간 중 자원봉사자들은 통역과 의전, 시상 등 31개 직종을 맡게 된다. 이들은 각 경기장과 선수촌, 공항, 역 등에 배치돼 현장 곳곳에서 행사 진행, 수송운전, 통역 등 크고 작은 역할을 맡아 수행하게 된다. 조직위는 대회 개막전까지 자원봉사자들

에게 각 부서별 직무교육과 장소별 현장교육을 완벽히 실시해 대규모 국제행사 자원봉사자로서 최고의 능력을 보여줄 예정이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5년
민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 ~ 2019]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광주천 대대적 환경정비

2021년까지 370억 투입

생태·문화공간 조성

4수원지 물 하루 1만6000t

끌어와 흘려보내기로

광주시가 광주 도심을 관통하는 광주천을 손질해 다양한 동식물이 살 수 있고, 시민들이 언제고 찾아가 놀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킨다. 깨끗한 물을 끌어와 매일같이 흘려보내는 동시에 오염물질 차단에도 나서고, 하천 주변에 각종 편의시설을 추가로 건립해 '시민과 동식물 모두가 찾아드는 광주천'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관련기사 3면>

하지만,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유사한 정비사업이 과거에도 반복됐다는 점, 자연 그대로 복원을 위한 깊은 고민없이 사업이 추진된다는 점에서 '근본 대책은 빠진 채 예산만 투입하는 방식'이어서 효과에 의문이 든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27일 광주천을 상시적으로 맑은 물이 흐르는 생태·문화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오는 2021년까지 총 370억원을 투입해 대대적인 '광주천 환경정비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이용섭 시장의 공약인 '아리랑 문화물길 조성사업' 가운데 생태·친수 인프라 구축 사업의 하나다.

광주천 환경정비사업은 ▲수량 확보 ▲수질 개선 ▲생태복원 및 친수시설로 나눠 진행된다. 이 사업과 별개로 오는 2025년까지 국비 등 1315억원을 투입, 광주천으로 흘러 드는 오염물질 차단을 위한 오수간선관로 설치사업도 추진된다.

광주시는 우선 매일 1~2급수의 하천유지 용수 10만9000t을 안정적으로 공급, 넘새 나는 광주천을 맑은 하천으로 변화시킨다. 이를 위해 2026년 상수원 용도 폐지 예정인 제4수원지에서 하루 평균 1만6000t의 물을 끌어온다. 광주천 주변 대형건물 5곳의 지하수를 활용해 하루 1750t, 광주천 상·중류부에 대규모 광경 4곳을 뚫어 하루 250t을 확보한다.

생태복원 및 친수시설을 위해 생태 보존존, 생태 체험존, 생태 문화존, 생태 휴양존 등 하천의 구간별 특성을 살린 4개의 테마존도 조성해 시민들이 놀고 쉴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한다. 광주시는 6월까지 광주천 종합 환경정비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 상반기까지 실시계획 용역을 거쳐 2021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광주시는 광주천의 국가하천 승격이 눈 앞에 두고 있다면서 "국가하천 승격시 홍수예방 등 치수사업을 국가에서 추진할 뿐 아니라, 국비 투입으로 안정적인 하천유지관리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제18회 2019 광주FINA세계수영선수권대회

The 18th FINA World Championships Gwangju 2019

DIVE INTO PEACE

평화의 물결 속으로

선수권대회 2019.7.12. ~ 7.28. (17일간)

마스터즈대회 2019.8.5. ~ 8.18. (14일간)

Official FINA Partners: Nikon, Yakult, arena, Myrtha Pools, 农夫山泉, OMEGA, SAMSUNG, kt, 광주은행, 흥국증권

National Sponsors: ASIANA AIRLINES, M&M, J-DURAFLEX, Malmsten, Mikasa, PLANEW, 인제대학교, DB손해보험

Official FINA Suppliers: (주)세방여행, 티켓링크, 제일 에프앤에스, 동명산업